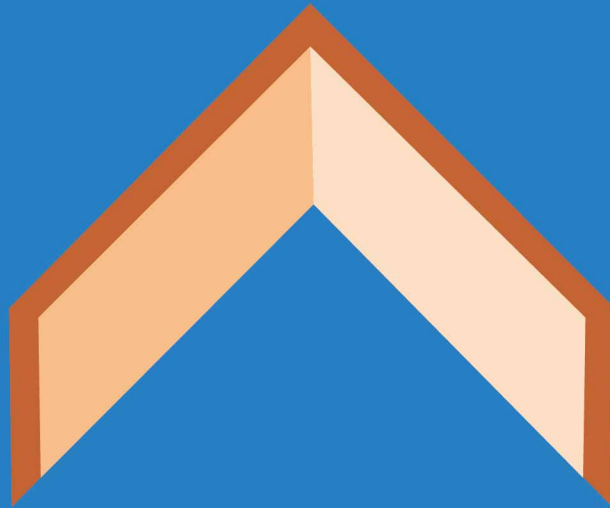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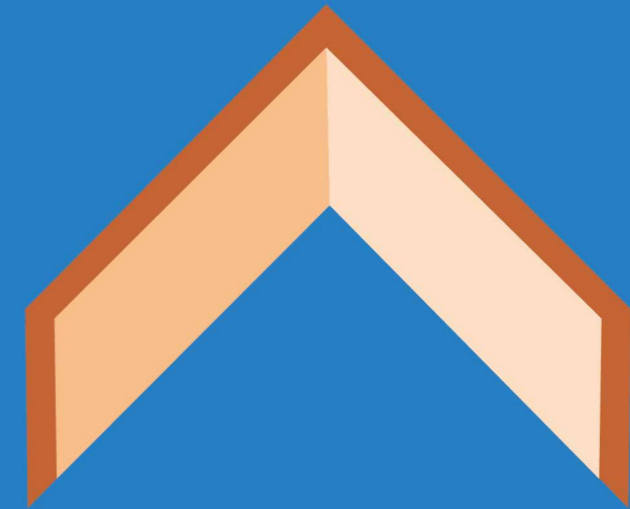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50
2025년 10월



전라남도 영광 상·하낙월도

- ISLAND KEYWORD
- FRIENDS
- PHOTO STORY
- LIFESTYLE
- PEOPLE
- RESOURCE
- TRAVEL
- NEWS&ISSUE



'시웃'의 표지는 지역 청년작가 정주은 님이 영광 낙월도 이야기를 작가의 시선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 작품 소개: 배 위에 선 어부의 시선으로 풀등과 달을 담아내어, 독자를 맞이하는 풍경

CONTENTS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03 중선(中船)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04 칠산바다를 지키는 섬, 낙월도의 화양연화 김준 님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8 달달 무슨 달~낙월의 달빛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10 오늘의 숙제,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

우리 섬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에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에디터 김신연
*전화: 061-286-6764 *이메일: fun1015@korea.kr
'시웃'은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언제나 함께 나누겠습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12 낙월의 옛이야기, 달빛처럼 전하다 장덕례 님
- 16 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다 김영준 님
- 20 끝벌도 섬살이를 한다면? 김성연 님
- 25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와 함께하는 '시웃' 이벤트

RESOURCE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 26 1월부터 12월까지, 영광 상·하낙월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 27 알아두면 쓸모있는 K-섬 잡학사전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28 영광 상·하낙월도 투어가이드

NEWS&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 36 한국섬뉴스와 함께하는 이달의 주요 섬 뉴스
- 37 이달의 섬 코디네이터 소식

*'시웃' 낙월도 편에 수록된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 제공 사진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진에는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로 표기되었습니다.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중선(中船)

바다 위의 생계, '중선배' 이야기

중선(中船)은 '중간 크기의 배'를 뜻한다. 조선시대 수군에서도 쓰였고, 무엇보다 서남해안 어업에서 상징적인 어선이었다. 배에 타는 어부 수로 따지면 보통 25~30명이 함께 타는 규모로, 이보다 크면 대선(大船), 작으면 소선(小船)이라 불렀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중선은 조선 후기 바다가 개방되면서 본격적인 생계형 어업의 중심선으로 활약했다.

중선은 물살이 빠른 서남해안에 딱 맞춰 설계된 배다. 바다 밑에 큰 닻을 내리고, 그 위에 배를 고정해 채 조류를 따라 움직이는 물고기 떼를 기다린다. 어장이 되는 길목에 배를 세워두면, 흐름을 타고 들어오는 조기, 민어, 새우 등이 긴 그물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배에는 두 개의 돛대가 있다. 흥미롭게도 앞쪽 돛대가 크고 똑바로 서 있으며, 뒤쪽 돛대는 작고 약간 누워 있다. 일반적인 배들과 반대 형태다. 당시 배의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눈에 띄는 차이였을 것이다.

중선은 노동집약적인 배다. 닻을 조절하는 '망개', 그물을 올리고 내리는 '호롱', 그리고 줄을 당기고 고기를 퍼 올리는 온갖 작업에 많은 손이 필요했다. 단순히 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비로소 조업이 가능했다. 한 척의 배에 30여 명이 타고, 고기를 잡아 마을로 돌아오면 그 수확은 한 마을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했다. 그래서 "중선배 한 척이면 백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허언이 아니었던 셈이다.

바다가 황금 들판이던 시절, 사람들이 다시 섬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고, 조기는 연평어장과 칠산어장을 따라 해마다 회유했다. 이때 중선은 가장 효과적인 어업 수단이었다. 중선을 이용한 조업을 통해 어민들은 자본을 축적했다. 한 척의 배로 바다를 누비며, 백 사람의 밥상을 책임졌던 그 시절. 그 안에는 공동체의 협력과 생존의 지혜, 그리고 바다를 품었던 시간이 담겨 있다.

▲ 낙월도 새우잡이 황금시대의 중선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

도움 주신 분들

- 김준 섬 문화 박사 겸 작가
- 정주는 청년 현대미술 작가
- 김영준 영광군 상낙월도 이장
- 장덕례 영광군 낙월도 최고령 주민
- 김승제 영광군 상낙월 주민
- 장철진 영광군 낙월도 어촌계장
- 김유상 영산초등학교 낙월분교장 교사
- 김춘자, 김미순 영산초등학교 낙월분교장 학생
- 최종민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 회장
- 김성연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 연구사
- 영광군 낙월면사무소
- 양진형 한국 섬 뉴스 대표

발행처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글·사진 김신연, 정태균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가고 싶은 섬 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발간된 '시웃'이 궁금하다면?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칠산바다를 지키는 섬, 낙월도의 화양연화

김준

섬문화답사기 저자, 한국섬진흥원 이사,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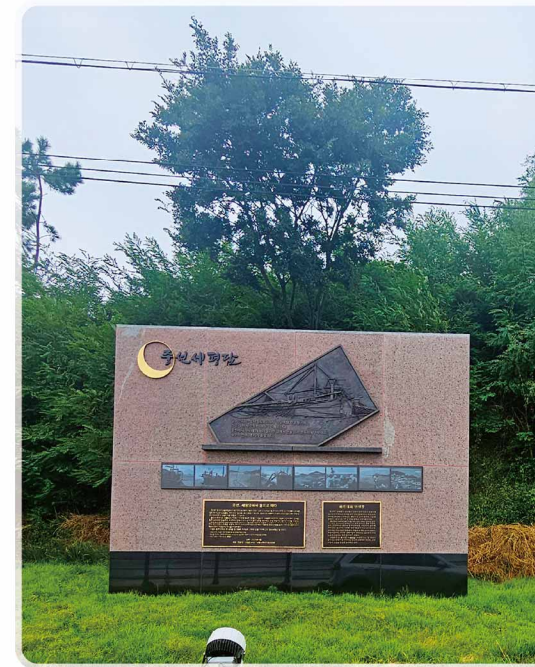
낙월도로 가는 뱃길은 칠산바다로 가는 길이다. 한 시절 팔도 어민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또 한 시절은 개미진 남도 밥상을 책임졌던 바다가 아닌가. 건어물을 팔았던 장모님의 삶의 터전이기도 해서 그 바다가 예사롭지 않다. 여객선을 타기 위해 항화도로 가는 길은 좌우 눈에도 내려앉았다. 벌써 수확을 한 곳도 있다. 저곳은 한때 바다였고, 갯벌이었다. 그곳에 그물을 놓아 조기를 잡고, 소금을 굽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했다. 그래서 염산이라 했던가. 어민들은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북북 울어대는 황금갑옷을 입은 조기들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을 것이다.

Story 1. 낙월의 아이콘, 젓새우와 중선

낙월도는 상낙월도와 하낙월도 두 개의 섬을 말한다. 제방으로 이어져 있다가 최근 다리로 바뀌면서 주변 갯벌생태계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 주민들은 '진달이'라 불렀다. '달이 지는 섬'이란 뜻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진월도', 《대동지지》에 '낙월도'로 기록되어 있다. 낙월도를 세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젓새우다. 낙월도 흥망성쇠를 결정한 것도 작은 새우의 힘이다. 젓새우잡이가 성할 때는 1,500여 명이 작은 섬 낙월도에 머물렀다. 지금은 40여 명이 섬을 지키고 있다. 학생도 200여 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두 명도 뒤늦게 입학한 70대 어머니다. 이틀마저 졸업한다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 진월교가 연결하는 상낙월도와 하낙월도



▲ 영광 상낙월도 옛 선창에 설치된 '중선세평담' 중선기념비

지난 6월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에 옛선창에 '중선세평담'이라는 조형물이 세워졌다. 중선은 조선 조부터 이어온 새우잡이 전통 한선이다. 이 배로 영광, 신안, 강화 등 서해에서 새우나 조기를 잡았다. 전라도에서는 젓새우를 주로 잡아 젓중선이라 불렀고, 강화나 옹진에서는 '꽃배'라 했다. 바다에 있는 모습이 새가 좌우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을 닮아 활개배라 불렀다. 중선은 엔진도, 돛도, 노도 없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멍탕구리배'라고도 했다. 길이 15미터, 폭 5미터 그리고 배의 무게가 무려 10톤이 넘어 거센 조류에 버티며 그물을 펼치기 위해 길이 8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닻으로 무장했다. 이 육중한 배가 주로 잡는 해산물은 무게 1그램도 되지 않는 젓새우다.

중선으로 새우를 잡는 어업을 해선망어업, 즉 '젓(醃)을 만드는 배(船)'라고 규정했다. 이 작은 젓새우로 만든 새우젓이 아니면 뜨끈한 국밥도, 일 년을 두고 먹을 김장도 제맛을 내기 어려웠다. 멍탕구리가 아니라 당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첨단기술이었다. 그 새우를 찾아오는 조기를 잡기 위해 한때 팔도의 배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임원경제지』는 이 배가 '어조망이고, 어민들이 중선이라 부른다'고 했다.



시운 Vohra ● 영광 상·하낙월도

▲ 웅장한 닻을 내린 낙월도의 중선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

Story 2. 작은 목포, 낙월도의 그때 그시절

젓새우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 칠산어장에는 영광군 낙월면에 속하는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각이도, 각씨도, 석만도, 임병도 등이 있다. 이중 낙월도는 상낙월도와 하낙월도를 포함하며, 1990년대 초반까지 90여 척의 중선으로 새우를 잡았던 섬이다. 일곱 개의 작은 무인도 주변이 최고의 젓새우 어장이었다.

젓새우는 잡는 시기에 따라 오젓, 육젓, 추젓, 동백하젓 등으로 구분하고, 모양과 크기에 따라 자하젓, 붉새우젓, 중하젓 등 다양하게 구분한다. 잡은 새우젓은 목포로 내다 팔았다. 새우젓이 많이 나던 시절에는 목포와 오가는 뱃길이 있었다. 돈이 많고 술집과 다방도 많아 낙월도를 작은 목포라고도 불렀다.

중선으로 새우를 잡기 위해 사공과 영재, 조동무, 하동무, 밥 짓는 화장까지 5명이 탔다. 여기에서 섬에서 잡아온 새우를 추리고, 세척하는 일까지, 가족을 보태면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생계를 이었다. 새우를 그물에서 터는 즉시 배 위에서 세척과 선별을 한 후 천일염과 버무려 젓을 담는다. 새우만 아니라 민어, 병어 등이 들었지만 낙월도 어민들에게 젓새우 외에는 잡어였다. 태풍 셀마 이후, 중선은 아픔과 함께 사라졌지만, 젓새우는 여전히 낙월도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11척의 닻배가 젓새우를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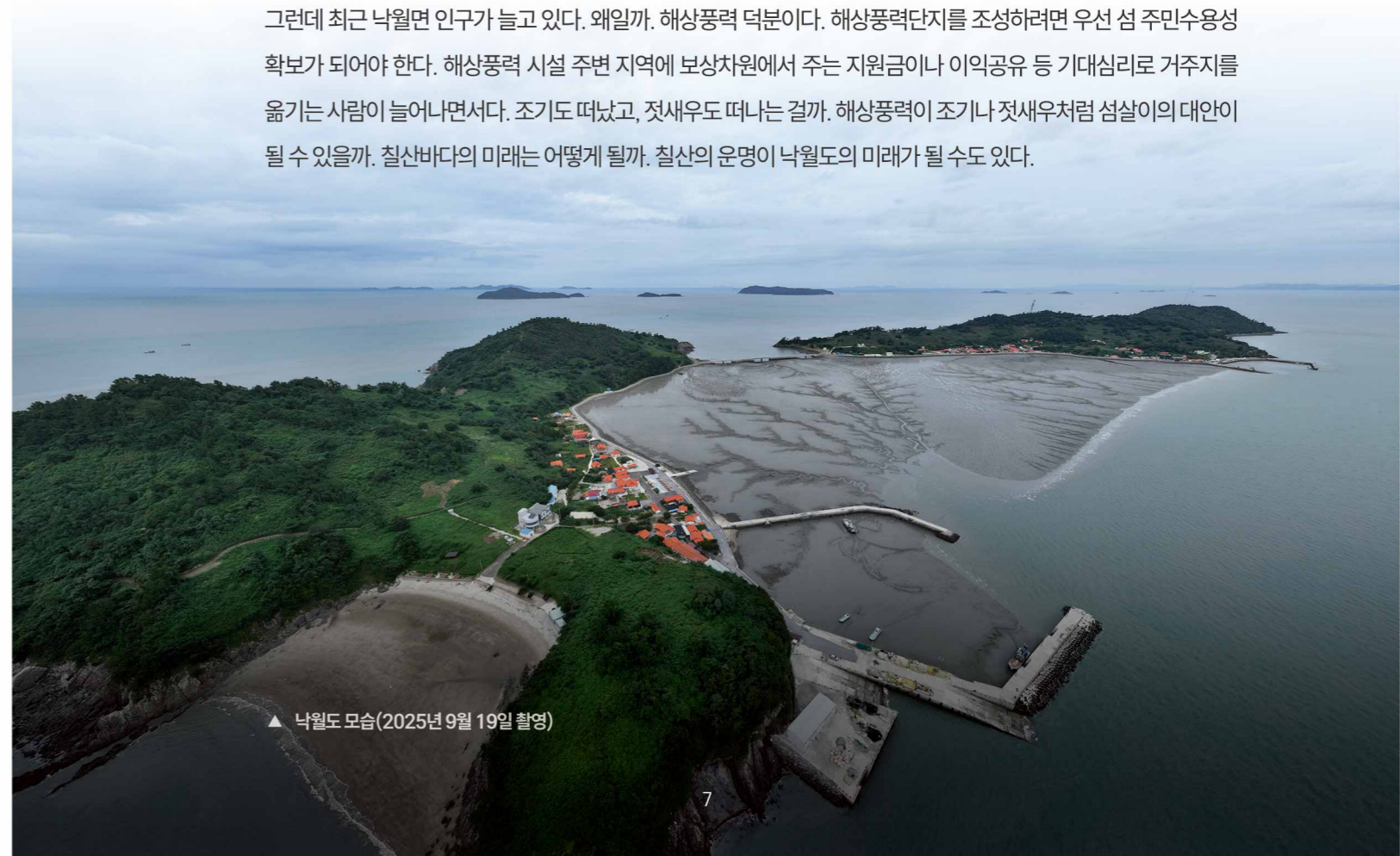
▲ 1989년 상낙월도 선착장에서 낚시를 즐기던 어린이들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

Story 3. 칠산바다가 보고 싶다면

칠산바다는 신안의 북쪽 끝 섬 임자도에서 부안군 위도에 이르는 바다를 말한다. 어떤 이는 영해기점이 있는 부안 왕등도까지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 중심은 대각이도, 낙월도, 송이도, 노인도, 칠산도에 이르는 해역이다. 이곳은 풀등이 발달했다. 풀등은 모래섬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질 때면 모래 섬이 모습을 보인다.

향화도항에서 낙월도로 가는 배를 타면 가장 먼 보이는 섬이 임병도다. 이어 소각시도 대각시도가 이어진다. 그 뒤로 낙월도가 있다. 그 뱃길이 칠산바다로 가는 길목이다. 칠산바다는 이미 배를 타면서 시작된다. 낙월도에 도착해 상낙월도와 하낙월도의 둘레길을 걸으면서 칠산바다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칠산바다를 조망하기 좋은 곳은 하낙월도 둘레길이다. 이곳에서는 대각이도, 소각이도, 송이도, 노인도, 칠산도를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상낙월도 둘레길을 걷다 보면 사슴을 만날 수도 있다. 빗물받이 배수로 곳곳에 도둑게도 많다. 이 두 길을 '진달이 둘레길'이라 하는데 약 8킬로미터에 이른다. 넉넉하게 2시간 반 혹은 3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다. 중간에 상낙월 해수욕장은 풀등으로 이어진다. 하낙월에도 작은 장별 해수욕장이 있다. 시작점이 상낙월도 선착장이며 마무리는 하낙월도 선착장이 좋다. 여객선이 두 곳을 차례로 닿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좋다. 다만 풀이 잘 자라 계절에는 하낙월도 둘레길은 걷기 어렵다. 육지에서 칠산바다를 보고 싶다면 백수해안도로가 좋다. 노을이 지는 칠산바다라면 더 좋다.

여느 섬과 마찬가지로 낙월도에 아이 소리는 듣기 어렵다. 젊은 사람을 만나면 어김없이 배를 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바다만 텅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섬도 비어간다. 어쩌면 바다가 공궁해지니 섬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낙월면 인구가 늘고 있다. 왜일까. 해상풍력 덕분이다.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면 우선 섬 주민수용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해상풍력 시설 주변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이익공유 등 기대심리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다. 조기도 떠났고, 젓새우도 떠나는 걸까. 해상풍력이 조거나 젓새우처럼 섬살이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칠산바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칠산의 운명이 낙월도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 낙월도 모습(2025년 9월 19일 촬영)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달달 무슨 달~ 낙월도의 달빛

바다 위로 달이 떠오르면, 낙월도의 밤은 고요한 은빛으로 물듭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면 달빛이 수면 위에서 천천히 흩어지고 섬은 그 빛을 고스란히 품은 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낙월도(落月島), '달이 떨어지는 섬'이라는 이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와 사람들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날들, 왕족 한 사람이나 당 연합군의 추격을 피해 바다로 피신하다가 이 섬 뒤편으로 지는 달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광경이 너무도 인상 깊어, 달이 지는 곳이라 하여 '낙월(落月)'이라 불렀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옛사람들은 이 섬을 순우리말로 '진달이섬'이라 불렀습니다. '달이 지는 섬'이라는 뜻의 진달이는 지금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말입니다. 육지 쪽 영광 법성포에서 보면 달이 바다 건너 낙월도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풍경이 보였고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달이 쉬어가섬'이라 불렀다고도 전해집니다.

낙월도는 예로부터 바다의 길목이자 서해를 오가던 어선들이 머물던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아담한 섬이지만 영광 법성포와 임자도, 목포를 잇는 중요한 항로에 자리하며 해상 교역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낙월면에는 안마도, 송이도, 낙월도가 있고 그중 낙월도는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과거 상낙월과 하낙월 두 섬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리가 연결되어 하나의 섬이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낙월도 이야기

* 출처: 대한민국 '섬' Korea Island
- 명탕구리배(새우잡이배)가 바다를 수놓았던 낙월도 이야기

▲ 달을 품은 낙월도의 월암정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



▲ 1991년 당시 낙월도 앞바다를 누비던 중선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

낙월도의 새우젓이 유명했던 이유는 단순히 새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웃한 영광군 염산과 신안군 임자도의 갯벌에서 나오는 최고 품질의 천일염 덕분이었습니다. 새우젓은 잡자마자 소금과 버무려야 하기에 소금의 질이 맛을 좌우했습니다. 굵은 소금 대신 바람과 햇살이 만들어낸 고운 봄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낙월식 비법이었습니다. 5월의 햇살과 6월의 새우가 만나 빛깔과 향, 맛이 모두 깊은 '육젓'을 완성했습니다. 그 시절 낙월도의 포구에서는 젓갈 향이 바람에 실려 마을을 가득 메웠습니다.

새우잡이가 번성하던 시절, 낙월도는 면사무소와 우체국, 지서, 보건소가 세워질 만큼 번창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척의 배가 드나들며 포구를 메웠고 섬에는 외지인과 상인, 노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낙월도의 거리는 사람의 목소리로 가득했고 해질 무렵이면 젓갈 통을 실은 수레가 줄지어 언덕을 올랐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소리 대신 파도소리가 대신하고 있지만 낙월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절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새우젓의 원조는 낙월도였다." 그 한마디에는 섬의 자부심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낙월도의 달빛은 여전히 변함없이 바다를 비춥니다. 이제는 새우잡이의 불빛이 사라졌지만 달은 매일 저녁 그 자리를 지키며 섬 사람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낙월도의 밤은 그렇게 오늘도 조용히 오래된 시간 위에 새로운 빛을 내려놓습니다.

*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의 섬 - 낙월도(영광군)』

1960~1980년대 낙월도는 새우잡이의 황금시대였습니다.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절반이 이곳에서 나왔고 법성포 못지않은 젓갈 상권이 형성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몰려들어 섬 전체가 활기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해 뜨기 전 새벽이면 명탕구리배들이 바다로 나섰고 해가 지면 다시 포구로 돌아와 소금과 새우를 버무렸습니다. 낙월도 사람들은 그 시절을 '섬이 가장 빛나던 때'라고 기억합니다.



▲ 25년 생산된 맛좋은 낙월도의 육젓



▲ 1991년 상낙월도 선착장 모습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



▲ 따뜻함이 머무는 염산초등학교 낙월분교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오늘의 숙제,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

상낙월도의 길을 걷다 보면 바닷가 언덕 위로 초록 잔디가 물결치는 조용한 학교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은 염산초등학교 낙월분교 상·하낙월섬의 유일한 초등학교다. 그 교실에는 올해 졸업을 앞둔 특별한 두 명의 6학년 1반 학생이 있다. 이름은 김춘자(71세), 김미순(69세). 섬에서 살아온 두 사람은 지금 이 작은 교실에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보내고 있다.

책상 위에는 태블릿과 연필, 이어폰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두 어른 학생의 표정은 어느 누구보다 진지하다. “오늘은 받아쓰기를 해볼까요?”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책 위를 바쁘게 움직이는 손끝에서 조용한 열정이 피어난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단어를 따라 적으며 하나하나 소리 내어 읽는 두 사람. 그 순간, 교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부방이 된다. 글자 하나, 문장 하나에 담긴 진심이 시간보다 느리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빠르다.



▲ 염산초등학교 낙월분교 6학년 1반 김미순(좌), 김춘자(우) 학생



▲ 바다의 손맛이 담긴 김미순님의 섬 밥상, 꽃게무젓

김미순 삶의 또 다른 교실, 바로 '섬밥상'의 시간이다. 상낙월도에서 김미순님은 정성스러운 밥상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손님이 찾아오면 정성스러운 낙월도의 섬밥상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섬에서 먹는 밥은 바다가 알려줘요. 그날 잡히는게 메뉴지요.” 그녀 웃으며 말한다. 칼질과 국자로 시작하던 하루는 이제 연필과 공책으로 이어졌다.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우던 손이 이제는 글씨로 세상을 배워가고 있다. “글자를 알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김미순님의 말에는 잔잔한 기쁨이 묻어난다. 배움이란 게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걸 이제서야 온몸으로 느낀다며 웃는다. 그의 교실과 부엌은 다르지 않다. 둘 다 정성을 다해 마음을 채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 배움의 손끝에서 탄생한 두 학생의 작품

교실 뒤편에는 두 분이 정성껏 만든 작품들이 걸려 있다. 자연과 함께한 미술 시간의 흔적과 바다 풍경 속에 배움의 설렘과 하루의 성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조금 천천히, 조금 느리게 배우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진지함과 열정이 깃들여 있다. 그들이 써 내려가는 한 글자, 한 문장은 섬의 시간 위에 새겨지는 새로운 기록이 된다. 수업이 끝나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다. “오늘의 숙제요?” 김미순님이 밝게 대답한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염산초등학교 낙월분교는 지나가는 바닷바람도 잠시 멈춰 귀를 기울인다. 그녀들이 전하는 배움의 소리는 오늘도 섬의 교실을 넘어 낙월도의 바다 끝까지 퍼져나간다. 배움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도 이곳의 교실에서는 새로운 내일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



▲ 작은 교실의 시작을 알리는 문패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낙월의 옛이야기, 달빛처럼 전하다



장덕례

낙월도 최고령 어른(1933년생)

Q1.

언제부터 낙월도에 사셨어요?

나는 낙월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평생을 이 섬에서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육지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낙월 사람이셔서, 결혼 후에도 이곳에 머무셨죠. 나 역시 결혼을 하고도 섬을 떠난 적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배 한 척이 하루에 한 번뿐이라 육지로 나가려면 새벽부터 준비해야 했고 날씨가 조금이라도 나쁘면 며칠씩 발이 묶이곤 했어요. 그때는 배를 타고 나간다는 게 큰일이었죠. 낙월도에서 목포까지 8시간이나 걸리던 시절 그 바다 건너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새벽안개 속 뱃고동 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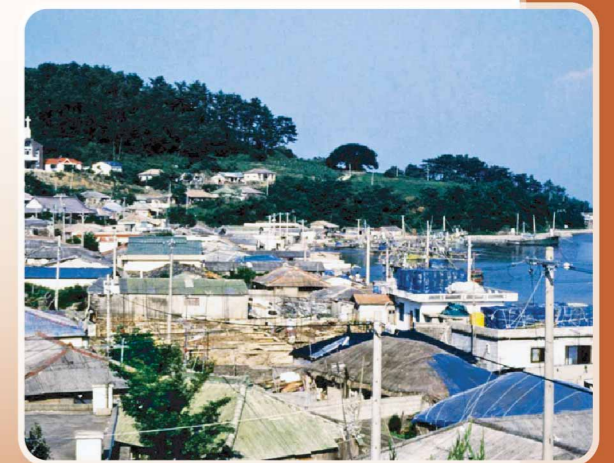
▲ 1989년, 활기로 가득했던 상낙월도 새선창의 풍경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

Q2. 어떤 일을 하며 살아오셨나요?

열여덟 살에 시집와서부터 평생을 바다 곁에서 살았어요. 새우철이 되면 갯가로 나가 새우를 낚았고, 물이 빠지면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며 하루를 보냈죠. 일당은 돈이 아닌 새우나 바지락으로 받았어요. 그걸 손질하고 말려 팔아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을 도와 그물을 만들기도 했고 선주들의 발에 나가 김을 매기도 했어요. 하루가 참 길었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이 모두 다 귀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또 고맙게도 견뎌온 세월이었어요.

Q3. 예전 낙월도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옛날 낙월도는 정말 활기가 넘쳤어요. 새우잡이 철이면 조업을 마친 배들이 포구를 가득 메웠죠. 그때는 섬 전체가 들썩였어요. 마을 어귀는 늘 사람들로 붐볐고 여자들은 새우를 낚고, 남자들은 그물을 손질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낙월도에 방문하는 상인들도 많았어요. 그때의 낙월도는 '작은 목포'라고 불릴 만큼 활기찼죠. 낙월도 새우젓이 유명했던 건 염산과 임자도에서 온 좋은 소금 덕분이에요. 그 고운 천일염이 낙월도의 새우젓 맛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죠. 모두가 함께 일하며 웃던 그 시절 낙월도의 바람과 햇살은 늘 사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 1989년 상낙월도, 그 시절의 마을풍경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

Q4. 옛 시절이 그리운 이유는 뭘까요?

그 시절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정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바다로 나가고 여자들은 밭일과 갯일을 도맡았죠. 아이를 돌보고 손님이 오면 밥상을 차리고 봄이면 보리, 여름이면 감자, 가을엔 다시 보리를 심었어요. 먹을 게 모자랄 땐 감자를 썰어 말리고 보리밥에 섞어 지어 식구들끼리 나눠 먹었죠. 세상은 어렵던 시절이었지만 마음만은 늘 따뜻했어요.

Q5. 기억에 남는 낙월도의 순간이 있나요?

6·25전쟁이 났을 때는 참 무서웠어요. 첫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었으니 스무 살쯤이었죠.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 사라지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의 면사무소 앞, 바닷물이 빠지면 죄 없는 내 친구들이 희생되었어요. 갯벌이 피로 붉게 물들던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 시절의 공포와 슬픔은 평생 마음에 남아 있죠. 그래도 가족과 이웃이 곁에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버텼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맙습니다.



▲ 1989년 상낙월도 해안도로 모습 ©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



▲ 마을길 끝, 햇살 속에 고요히 서 있는 낙월교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장덕례 어르신 ▶

Q6. 지금의 낙월도, 그리고 어르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지금의 낙월도는 한결 조용하지만 그만큼 평화로워요. 자식들은 육지에서 살지만 나는 여전히 낙월도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히 보내요. 이웃들이 늘 안부를 물어주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이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 섬이 내 몸처럼 느껴져요. 젊은 날엔 일하느라 보지 못했던 풍경이 이제는 하루의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낙월도의 바람과 햇살 속에서 이렇게 건강히 살아가는 지금이 참 행복합니다.

에디터 이야기

세월을 품은 목소리, 낙월도의 시간에 말을 걸다

장덕례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보다 깊은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낙월도의 지난 시간을 다시 불러내는 살아 있는 기록이었죠. 6·25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눈가가 촉촉해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했습니다. 책이나 영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진짜 감정들이었습니다. 힘든 시절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온 한 시대 여성의 삶이 그녀의 눈빛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낙월도에서 쌓아온 시간들은 여전히 그 시절의 바다를 품고 있었고, 그 삶을 통해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다

김영준

상낙월도 이장



Q2.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젊은 시절부터 늘 마음속에는 ‘언젠가 고향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낙월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었고 그때 세워진 교회는 65년 넘게 섬의 믿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향을 찾았을 때, 교회에 성도 한 분만 계셨습니다. 조용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하는 깨달음이었죠. 그날 이후 하나님께 기도 했습니다. “은퇴하면 낙월도로 돌아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금 일찍 은퇴했고 지금은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돌보며 마을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낙월도의 기억을 다시 잇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여정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섬을 품은 그의 걸음은 오늘 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낙월도의 내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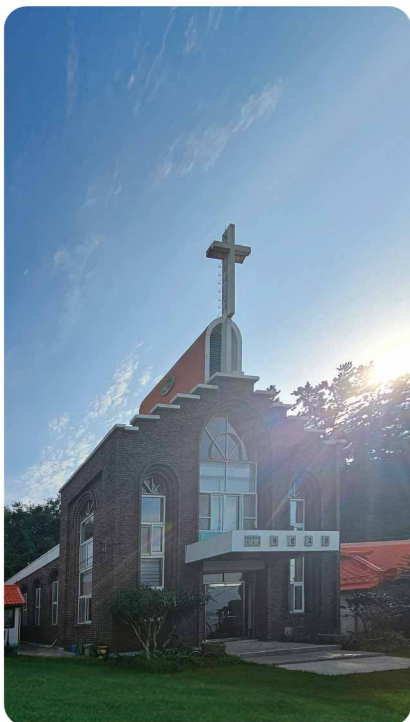
Q3. 낙월도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낙월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자, 섬의 장소입니다. 아이 때 친구들과 맨발로 모래사장을 달리던 기억, 바다에 낚싯대를 던지면 금세 물고기가 올라오던 시절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아침이면 바다 위로 햇살이 번지고 밤이면 달빛이 포구를 비춥니다. 특히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풀등이에요. 물이 빠질 때 드러나는 그 넓은 모래사장은 섬 사람들의 삶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대맛을 잡으며 바다의 변화로 계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풀등 위에서 서면 바람이 지나가고 그 바람 속에서 ‘아, 이게 고향의 숨결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낙월도는 세상의 어떤 곳보다 큰 위로를 주는 섬입니다.

Q1.

낙월도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저는 낙월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목포 유달중학교로 진학했고 서울에서는 보인상업 고등학교(지금의 보인정보고)를 다녔습니다. 총신대와 대불대에서 복지를 전공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흥, 순천, 구례 등 여러 지역에서 35년간 목회를 하며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마음 한켠엔 늘 ‘고향 낙월도’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65세에 은퇴를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남은 생은 내가 태어난 곳,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신 곳에서 보내자.” 그 마음으로 상낙월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낙월도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 오랜 시간을 품은 낙월교회



▲ 물이 빠지면 모습을 드러내는 낙월도의 풀등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

Q4. 이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장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낙월도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섬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은 큼니다. 도시 사람들은 종종 섬을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누리는 건 도시보다 더 큰 평화와 여유입니다. 좋은 공기, 깨끗한 물,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 그리고 사람 간의 온기까지. 이곳에는 감사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자주 말합니다. "우리는 잊힌 사람들이 아니라, 바다의 품 안에서 삶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을을 정비하고, 행정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Q5. 최근 낙월도에 일어난 변화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가장 뜻깊었던 일은 중선기념비 제막식입니다. 낙월도의 새 우잡이는 한때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했을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그 시절, 마을 포구에는 매일 수십 척의 배가 드나 들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우젓의 고향은 낙월도다'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자부심을 다시 되찾기 위해 주민들과 향우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마을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낙월도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행사 날, 한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 납니다. "이장님, 우리 섬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보상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중선비기념비 제막식 보도자료 보러가기

◀ 중선기념비 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한 봉구꽃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

Q6. 앞으로 낙월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저는 낙월도가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섬이 되길 바랍니다. 크게 변하거나 복잡하게 발전하기보다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쉬어가고 가족이 함께 웃으며 머무는 섬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힐링의 섬'을 꿈꿉니다. 언젠가 쉼터나 가족 단위로 머무를 수 있는 치유센터가 생긴다면 섬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앞으로 낙월도에서 이루고 싶은 일입니다.



▲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김영준 이장과 든든한 동반자, 그의 아내



네이버블로그 '달품섬' 방문하기
네이버블로그 '달품섬'에서
낙월도의 더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에디터 이야기

마음으로 섬을 품은 한 사람의 이야기

김영준 이장은 '낙월도'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늘 '우리 낙월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섬을 향한 진심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장의 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섬의 하루하루를 주민들과 함께 쌓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믿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그의 모든 걸음 속에 스며 있습니다. 그는 낙월도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자부심을 하나로 잇고 있습니다. 잊혀가던 새우잡이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중선기념비를 세우며 섬의 이름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했던 향우들과 주민들의 감사한 마음이 그의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낙월도의 기억을 다시 잇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여정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섬을 품은 그의 걸음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낙월도의 내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꿀벌도 심살이를 한다면?

김성연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 연구사



▲ 소비장 속 작은 생명의 변화를 살펴보는 김성연 연구사

Q1.

곤충잡업연구소 소개와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는 전남 장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1914년에 도립 잠업강습소로 광주임동에 창설된 후 1969년 전라남도 잠종장을 거쳐 2011년에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로 개칭됐습니다. 곤충산업 경쟁력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개발을 목표로 식용곤충 스마트사육시스템 개발 및 표준화, 곤충 대량생산을 위한 저비용 먹이원과 질병관리기술, 순도높은 우량 누에씨 공급, 화분매개곤충 안정생산 체계 구축과 보급, 다양한 곤충을 첨가한 가공제품 개발 등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Q2. 곤충, 그중에서도 꿀벌 연구라는 길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곤충에 대한 거부감 없이 만지고 보고 자랐는데 곤충은 보면 볼수록 다양한 매력을 가졌습니다. 그 중 꿀벌은 다른 곤충들과 다르게 사회성 곤충이다보니 그 세계가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했습니다. 꿀벌은 사람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곤충으로 느껴졌고, 농업현장에서 꿀벌의 중요성을 보면서 연구자로서 기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꿀벌은 꿀만 만드는 곤충이 아니라 농작물의 70% 이상을 수분하는 필수 생태자원으로 기후변화와 꿀벌 질병 확산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먹거리와 생태적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고품질 로열젤리를 생산하는 '젤리킹' 품종

Q3. 수많은 곳 중에서 왜 섬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요?

여왕벌은 일생에 단 한 번 여러마리의 수벌과 교미를 하는데, 주변에 다양한 수벌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품종의 유전적 순수성이 쉽게 무너집니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어 외부 다른 수벌의 유입을 막아주기 때문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수벌과 안정적으로 교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하여 배를 타야만 하지만 영광 낙월도 섬을 선택했고, 이는 단순한 장소적 선택이 아니라 꿀벌의 유전적 순수성을 보존하고 신품종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낙월도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자내 별동의 모습

Q4. 섬의 바람과 공기가 꿀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섬의 바람과 공기는 꿀벌들에게도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면 여왕벌의 교미 비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정한 바람은 벌통을 환기시켜주고 병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섬 공기는 내륙보다 깨끗해 꿀벌들이 건강하게 자라기에 좋습니다. 바닷바람 속의 습도는 여왕벌 산란과 유충의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금기가 벌통을 빨리 닳게 만들 수 있어 연구자들이 세심히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여왕벌이 산란한 알의 모습

Q5. 육지에서서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을까요?



▲ 육각형 벌집 속에서 자라는 유충의 모습

육지에서서의 연구와 달리 섬에서의 연구는 무엇보다 격리성이 큰 장점입니다. 섬은 외부 수벌의 유입을 막을 수 있어 원하는 품종의 유전자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품종 보존과 교배육종에 강점이 있고, 육지 연구는 채밀 활동이나 다양한 환경 조건을 반영한 사양 관리법 농가 현장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6. 해풍이나 해무 같은 자연현상이 꿀벌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섬에서 만나는 해풍과 해무는 꿀벌들에게 특별한 환경을 만듭니다. 해풍은 벌통 안을 잘 환기시켜 곰팡이나 세균 같은 병을 줄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면 꿀벌들이 멀리 날아가 꿀을 모으거나 여왕벌이 교미 비행을 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해무는 공기 중 습도를 높여 어린 벌이 자라기에 알맞은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습하면 벌통 내부가 눅눅해져 곰팡이성(진균성)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Q7. 혹시 섬 꿀벌만의 귀여운 습성이 있나요?



▲ 꿀벌이 성충으로 변하기 전 단계인 번데기 모습

섬 꿀벌들은 마치 섬 사람들처럼 조금 더 차분한 성격을 보이곤 합니다. 외부 벌과 섞이지 않고 같은 무리끼리 생활하다 보니, 군체가 비교적 온순하고 다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집니다. 해풍이 불면 벌들이 다 같이 벌통 안에 모여 몸을 부비며 따뜻함을 유지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가족 같은 인상을 주지요. 또 꽃이 많지 않은 섬에서는 먼 거리를 함께 날아다니며 꿀을 모으는 협동심도 눈에 띄입니다.

Q8. 꿀 맛이나 향에서 섬만의 차이를 느끼신 적이 있나요?



▲ 벌들의 집, 생명이 자라는 공간

섬에서 나는 꿀은 확실히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꽃에서 꿀을 모으다 보니 향이 맑고 산뜻한 편이고, 단맛 속에서도 은근히 가벼운 뒷맛이 느껴집니다. 육지의 꿀이 풍부하고 진한 맛이라면, 섬 꿀은 바람과 햇살이 섞인 듯한 담백한 맛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밀원식물의 종류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섬 특유의 공기와 환경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결과라 생각하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Q9. 연구가 주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꿀벌 연구는 단순히 벌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도 직결됩니다. 꿀벌이 농작물 수분을 돕기 때문에 섬 주민들이 외부에서 키우는 과수나 채소의 품질과 수확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섬이 꿀벌 연구의 중심지가 되면 '낙월도 꿀벌섬'이라는 브랜드가 생겨 관광이나 특산물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10.

앞으로 꿀벌과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저는 꿀벌과 함께 사람과 자연이 더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꿀벌은 작은 몸이지만 농업과 생태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꿀벌을 지키는 연구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들고, 동시에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꿀벌 증식 기술, 병해충 방제, 밀원 자원 확대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에디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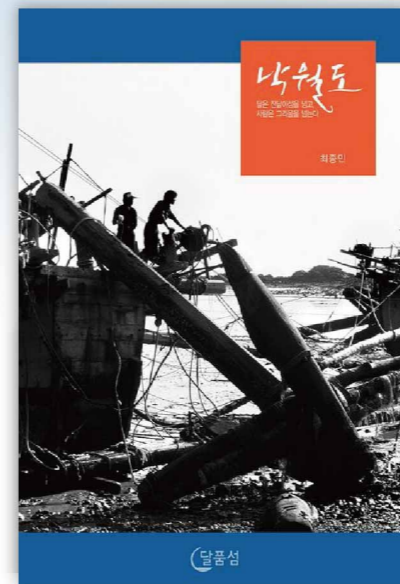
섬의 꿀벌과 함께한 연구자의 하루

김성연 연구사는 꿀벌과 함께 숨 쉬는 사람이다. 그녀의 하루는 작은 생명의 변화를 바라보며 시작되고 섬의 공기와 해풍 속에서 꿀벌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그 시선에는 따뜻함과 책임감이 고요히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이야기한 '섬 꿀의 맑고 담백한 향'처럼 말과 태도에도 투명한 진심이 묻어났다. 섬이라는 공간을 유전적 순수성과 생태적 다양성을 지키는 최적의 환경으로 바라보는 생각은 특히 인상 깊었다. 꿀벌의 세계를 과학의 언어로 해석하면서도 언제나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꿀벌을 돌보는 연구자이자 자연의 벗으로 작은 생명에게서 배움을 얻는 사람이다. 꿀벌을 향한 애정이 연구의 온기가 되어 퍼지고 그 마음은 낙월도의 내일을 단단하게 지탱한다.

EVENT

가을은 독서의 계절!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와 함께하는 '시옷' 이벤트

달은 진달이섬을 넘고, 사람은 그리움을 넘는다



'낙월도'
책소개 보러가기

가을 바람이 살짝 선선해지는 요즘,
섬을 닮은 한 권의 책이 '시옷' 구독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낙월도》최종민, 달품섬
“지금, 달을 품은 진달이섬의 오백 년 이야기는 장롱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고 싶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초록바다에 띄워야겠습니다.”

상낙월도를 고향으로 둔 저자 최종민(낙월도역사문화보존회 회장)의 손끝에서 탄생한 이 책은 섬의 기억을 다시 불러낸 따뜻한 기록입니다.

1부 '하늘땅 끝에서 길을 묻다'에서는 낙월도의 자연과 마을 유래를, 2부 '달빛으로 물들인 세월을 말하다'에서는 섬의 500년 역사와 '중산', 학교, 교회, 노래, 문화유산을, 3부 '옛길에서 내일을 만나다'에서는 지도에도 없는 섬 '풀등'과 '달품섬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섬의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QR코드를 스캔하고, 퀴즈를 풀어주세요!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추신 두 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10월 31일(금) ~ 11월 7일(금)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 11월 10일(월), 개별 문자 안내



이벤트
지금 참여하기

QR코드를 스캔하고 도전해보세요!
따뜻한 섬 사람들의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시옷' 구독자 이벤트,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 본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11월부터 발간되는 '시옷'을 정기 구독으로 보내드립니다.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영광 상·하낙월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쓸K-섬잡

알면 쓸데없어 보이지만, 알고 나면 쓸모 가득!
KOREA-섬 잡학사전 '알쓸K-섬잡' 이번달의 주제는 **물때표달력**입니다.

여러분! 섬 여행을 하면서 '물때표달력'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여객선 안이나 바다 근처 식당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죠.
그런데 지역마다 물때표 달력이 다른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달의 중력 때문이에요.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만들어내는 파동이 곧 밀물과 썰물,
그리고 이 주기를 정리한 것이 바로 물때표랍니다.

섬 주민들에게 물때표는 생활의 시간표이자 생업의 기준이에요.
같은 섬이라도 계절과 달에 따라 여객선 시간이 달라지고 낙월도의 풀등이 하루 두 번 드러나는 것도 모두 바다의 시간표가
정해주는 일이지요. 여객선 운항, 어업, 맨손 조개잡이까지 섬의 일상은 달과 바다가 만들어내는 리듬 속에서 이어집니다.

작은 달력 속에 거대한 우주의 힘이 담겨 있다니~ 참 신비롭죠?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해볼까요?
아래 그림에서 달과 바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물때표 보는 방법

2025년	월령	물때	날씨	만조 ▲	간조 ▼
10.12	12월	물	☁	05:28 (490) ▲+355	11:13 (65) ▼-425
(8.21)				18:17 (557) ▲+492	
		물흐름 60%			

- ① 만조/고조 : 물이 가장 많이 차 올랐을 때를 말하며 +숫자는 간조 이후 차오른 해수면의 높이
- ② 간조/저조 :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를 말하며 -숫자는 만조에서 빠진 해수면의 높이 차이
- ③ 물의 높이 : ()안의 숫자는 물의 높이를 말하며 단위는 cm

오늘의 인강! '물때'와 '물때표'를 만나보세요



물때표 보는법!!
물때의 모든것들 초심자용!!
* 출처: youtube - 곁동아농자



바다정보(밀물, 썰물, 시리물때, 조금물때,
조석표 보는법, 기타) 안내입니다.
* 출처: youtube - 탁선장

섬 여행 전
날씨 확인은 필수겠죠?
실시간 낙월도 날씨 확인



영광 상·하낙월도 투어가이드

*2025년 9월 기준

기본 현황

상낙월도 132가구 198명 1.27면적 km² 11.2해안선 길이 km

주요 관공서 면사무소, 파출소, 해경출장소, 보건지소, 우체국, 초등학교(분교)

하낙월도 65가구 86명 0.86면적 km² 5해안선 길이 km

여객선 운항정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함께하는
내일 낙월도 운항정보를 확인 해볼까요?



항차	기항지	동절기(10월 16일 3월 31일)		동절기(10월 16일 3월 31일)		비고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항차	항화도	7:30	-	7:30	-	정박지
	하낙월	8:30	8:25	8:30	8:25	
	상낙월	8:40	8:35	8:40	8:35	
	항화도	-	9:35	-	9:35	
2항차	항화도	10:30	-	10:30	-	정박지
	상낙월	11:30	11:25	11:30	11:25	
	하낙월	11:40	-	11:40	11:35	
	상낙월	13:00	11:35	13:00	-	
3항차	항화도	-	-	-	14:35	정박지
	항화도	14:30	13:55	15:00	-	
	상낙월	15:30	15:25	16:00	15:55	
	하낙월	15:40	15:35	16:00	16:05	
	항화도	-	16:35	-	17:05	정박지

운항사 / 여객선 (주) 해광운수 061-283-9915 / 섬사랑 12호

성인 편도 비용 성인 편도 5,500원 *차도선 (차량 20,000원 운전자 포함, 승용차 기준)

식당 및 편의 정보

구분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상낙월	큰얼민박	전남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 산184	061-352-3430	숙박/식사
	춘자민박	전남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 1길 30	061-353-6718	숙박/식사
	낙월도펜션	전남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 76	061-353-0756	숙박
하낙월	백하수오집민박	전남 영광군 나월면 낙월길 2길 43	061-352-7275	숙박/식사
	진월민박	전남 영광군 나월면 낙월길 32-3	010-2621-8891 010-3469-8891	숙박

백섬백길 65 8.4km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시웃' 낙월도 편에 수록된 지도는 낙월도역사자료보존회의 제공 자료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여행보다 살기 좋은 섬, 낙월도의 일상 속으로



▲ 향화도항에서 탑승을 준비하는 섬사랑 12호

영광 향화도 선착장은 늘 바다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이른 아침, 섬사랑 12호가 정박한 선착장 옆으로는 칠산타워가 든든히 서서 바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첫 배의 출항 안내 방송이 울리면 낙월도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배가 부드럽게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면 약 45분 뒤, 수평선 너머로 두 개의 섬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낙월도와 하낙월도, 다리로 이어진 두 섬은 함께 낙월도의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달이 바다 위로 내려앉은 듯한 이름처럼 이곳의 풍경은 언제나 온화하고 포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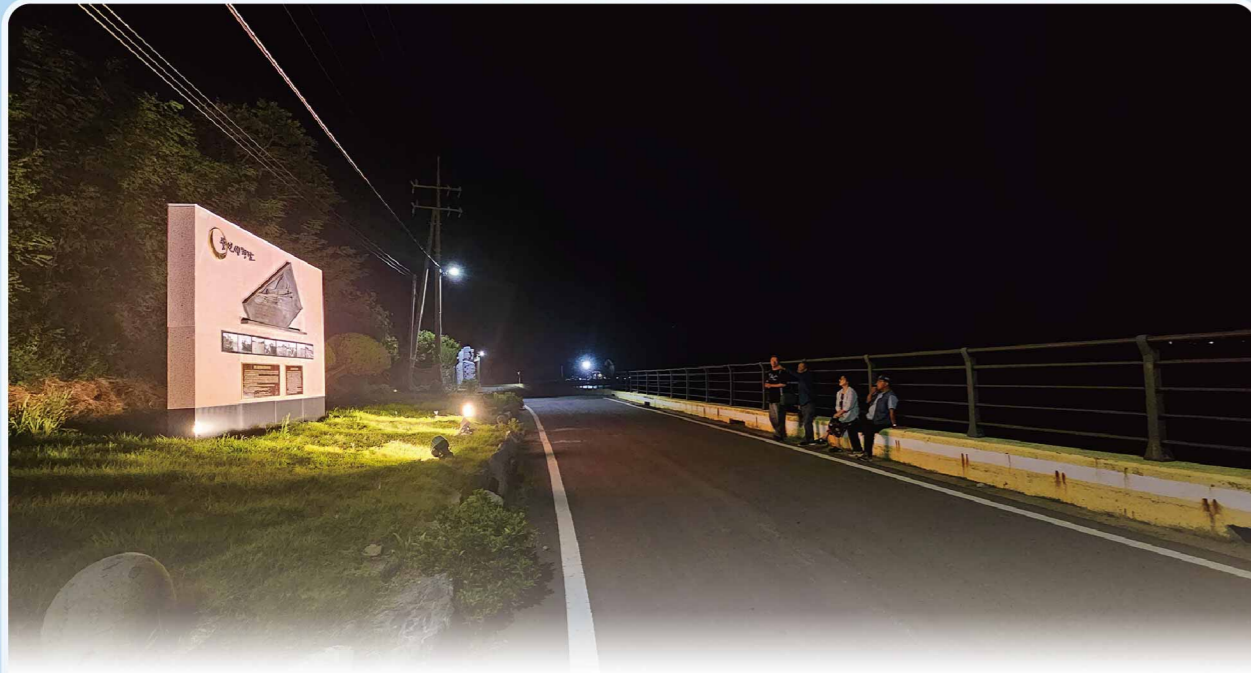
▲ 낙월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칠산타워

하루 세 번, 향화도항과 낙월도를 오가는 섬사랑 12호는 섬의 숨결을 잇는 따뜻한 배입니다. 향화도항에서 아침 7시 30분 첫 배가 떠나고 오전 10시 30분 두 번째 배와 오후 3시 마지막 배가 바다 위 길을 엽니다. 여객선은 사람들의 하루를 잇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섬의 동반자입니다.

낙월도는 한자로 '달이 떨어지는 섬(落月島)'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을 정겹게 '진달이' 또는 '진다리'라 부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는 백제의 한 왕족이 전쟁을 피해 바다로 피신하던 중 달이 지고 항로를 잃은 끝에 이 섬에 닿아 정착했다는 전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달이 지는 섬'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낙월도 인근 바다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너른 갯벌과 풀등이 드러나며 바다 위에 또 하나의 육지가 생겨납니다. 이곳의 옛 이름 '진다리'는 바로 갯벌을 뜻하는 진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갯벌 가운데 자리한 섬이라 '진들섬', '진다리섬'으로 불렸고 세월이 흐르며 한자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진월도(珍月島)'를 거쳐 지금의 '낙월도(落月島)'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낙월도의 이름에는 달빛보다 오래된 바다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섬을 걷다 보면 파도와 바람, 그리고 땅이 함께 써 내려온 고요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 상낙월도에 도착한 섬사랑 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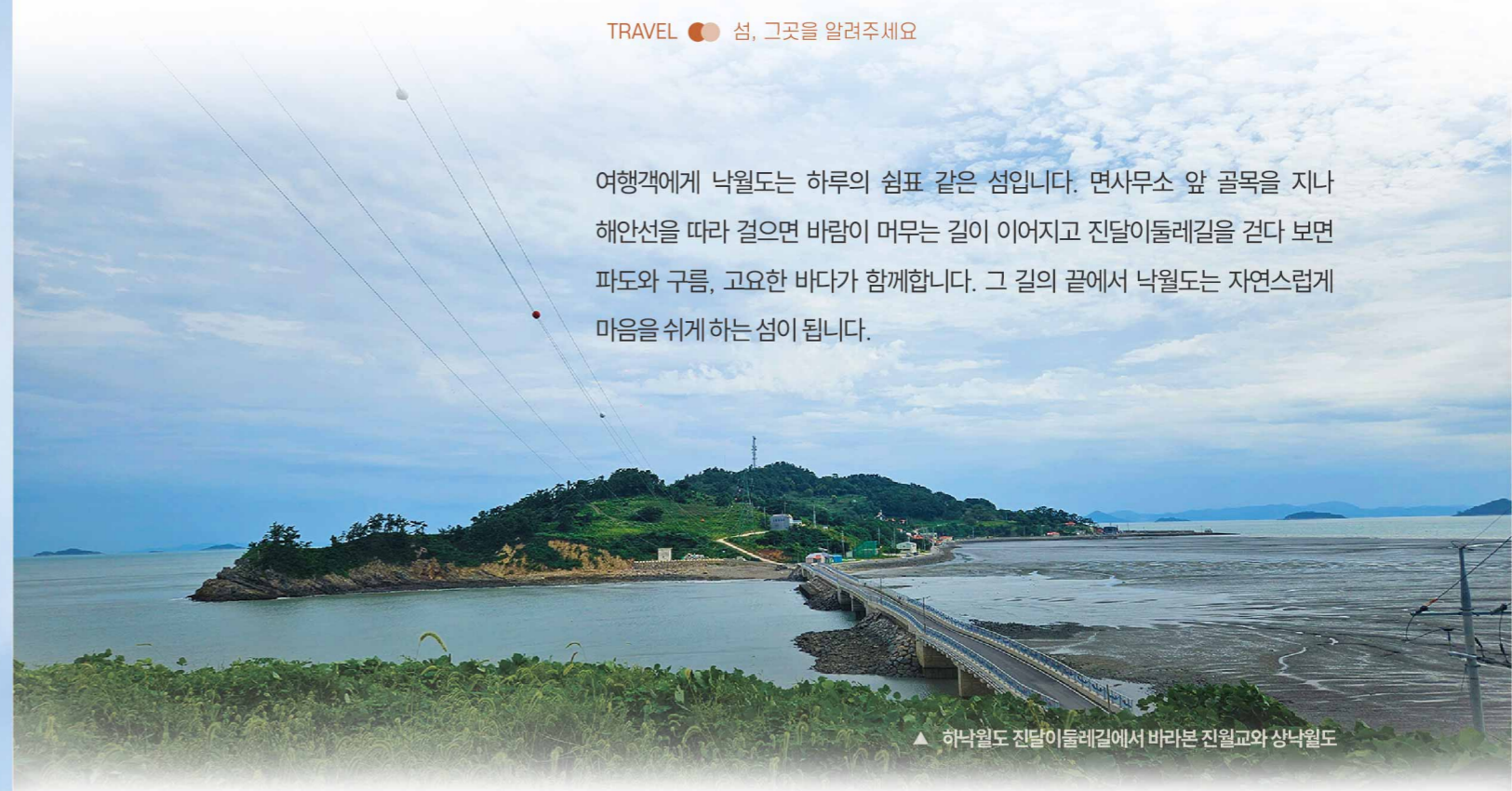


▲ 낙월도의 저녁이 머무는 곳, 주민들의 쉼터 중선세평담

낙월도의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상낙월도의 마을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과거와 현재의 풍경이 포근히 겹쳐집니다. 바다와 맞닿은 집들이 낮게 이어지고 그 사이로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흩어집니다. 상낙월도와 하낙월도를 잇는 진월교를 건너면 또 다른 풍경이 기다립니다. 자연이 만든 작품 벼락바위는 세월과 바람이 함께 빛을 조각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긴 시간의 숨결이 전해지고, 파도와 구름이 천천히 어깨를 스쳐 갑니다. 이곳의 하루는 파도와 바람의 온기로 채워집니다. 해가 저물 무렵, 큰길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면 저녁 산책의 길을 밝혀주고 잠시 걸음을 멈추면 만나는 중선세평담은 낙월도의 이야기를 품은 쉼터가 됩니다.



▲ 자연이 만든 조각, 하낙월도의 벼락바위



여행객에게 낙월도는 하루의 심포 같은 섬입니다. 면사무소 앞 골목을 지나 해안선을 따라 걸으면 바람이 머무는 길이 이어지고 진달이돌레길을 걷다 보면 파도와 구름, 고요한 바다가 함께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낙월도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쉬게 하는 섬이 됩니다.

▲ 하낙월도 진달이돌레길에서 바라본 진월교와 상낙월도



▲ 시간의 결이 스며든 상낙월도의 집들

낙월도에는 화려함보다 따스한 일상이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집, 바람을 맞이하는 골목,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풍경이 이곳의 하루를 채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낙월도는 바다의 시간에 맞춰 천천히 숨을 고르며 살아갑니다.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섬의 에너지를 넘어가세요

한국 **섬뉴스** 와 함께 보는 이달의 전남 섬 NEWS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군민에 월 15만원 지급

· 재생에너지 이익 연계 모델...1446억 투입 대형 프로젝트

전남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신안군은 앞으로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안팎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 3400억 원 규모를 투입해 소멸위기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도모하는 전국 단위 정책이다.

김준성 기자 | 2025. 10. 21.



완도군, 보길 예약도 '예술섬' 프로젝트 순항

· 50억 투입...전시공간, 포토존, 들레길, 허브 정원 등 조성

전남 완도군이 섬마다 지닌 자원을 활용해 전역을 '치유의 섬'으로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보길 예약도 관광 명소화' 사업이 순항 중이다. '23년 7월 보길 예송~예약도를 연결하는 해상인도교인 예약교(500m)가 완공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에 군은 보길도의 관광자원과 연계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예약도를 천혜의 자연환경, 돌담길 등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관광지로 조성하는 '예약도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스토리텔링 기반의 콘텐츠를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작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진형 기자 | 2025. 10. 21.



서삼석 “대체 여객선 없는 섬 향로, 정비 들어가면 주민 발 묶여”

· 정비·검사 사유 운항 중단, 작년 이후 8개 지자체서 33건 발생
· “섬 주민 교통권은 국가 책무, 여객선 운항 지속성 확보 시급”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일 수는 405일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재경 기자 | 2025. 10. 15.

이달의 섬 코디네이터 ISSUE

가고 싶은 섬 그리고 섬코디네이터가 함께한 2025년 기후행동인(in) 썬셋마켓

“섬의 에너지, 마을의 활력,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이 빛난 하루!”

10월 18일 토요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활기로 물들었습니다. 바로 '2025년 기후행동(in) 썬셋마켓'이 열린 날이었죠.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썬셋마켓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공기관이 함께한 지역 활력 축제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과 '섬코디네이터'가 함께했습니다. 섬의 매력과 섬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해지며 행사장은 따뜻한 에너지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섬의 손맛이 모였다! “한 입에 전남 바다”

이번 썬셋마켓에는 전남 곳곳의 섬코디네이터들이 정성 가득한 섬의 특산품과 함께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흥 연흥도의 진명희님은 손수 작고 바삭하게 말린 멸치를 진도 금호도의 김선복님은 직접 만든 맛간장과 김부각을 가져왔어요.

신안 소악도의 장명순님은 섬 밭에서 수확한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를 신안 선도의 주현주님은 정성껏 재배하고 말린 꽃차와 카무트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신안 고이도의 정찬경님은 섬의 바람과 색을 담은 비즈 공예품으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행사장에는 진도 금호도 채종학·김선복 부부, 신안 기점·소악도 김철수·조재갑, 신안 박지도 장청균, 신안 옥도 장미숙 섬코디네이터님들도 함께해 섬에서 전한 응원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 가고 싶은 섬 마켓

▼ 신안 선도의 향기를 담은 꽃차



배우고 즐기고, 직접 만들어보는 섬 이야기

보성 장도의 박형욱 섬코디네이터는 천마비버스카우트 친구들과 방문객을 위해 '섬코디네이터가 들려주는 섬 마을 이야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섬의 옛날이야기와 바다의 지혜가 흥미롭게 이어지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며 웃음이 퍼졌죠. 이어서 진행된 '국가중요어업유산 2호 뽕배 만들기 체험'에서는 직접 손으로 만들어 섬의 전통을 배우고 바다의 소중함을 느끼는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습니다.



▲ 보성 장도 박형욱 섬코디네이터가 들려주는 가고 싶은 섬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옷



2025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